

[시티 & 피쳐]

‘오월 광주의 예수’ 남동성당 봉헌 안타까운 무산



▲6차-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 ▲9차-세번째 넘어지심, ▲12차-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성당측 “예수 얼굴 등 보편적인 성화와 달라”
홍성담씨 “제작 주문 1년만에 들인 취소 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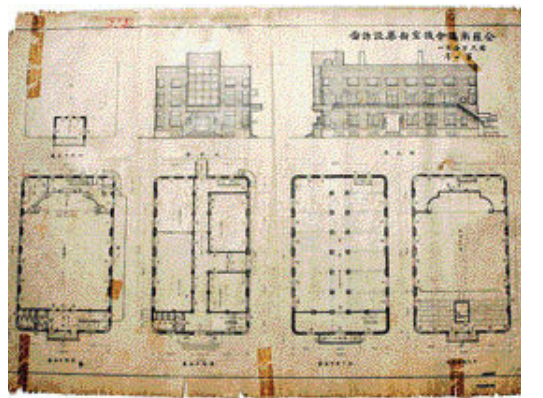
국내 처음으로 ‘오월 광주의 예수’를 형상화한 작품이 5·18 26주기 행사를 맞아 광주의 한 성당에 봉헌될 예정이었으나, 봉헌 무산됐다. 이 작품은 5월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별도로 종교와 광주 5·18을 접목하는 뜻 깊은 회화로 평가받았으나,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기까지 과정을 14개 장면으로 나눠 그린 성화로 일반적으로 성당 내부에 그림이나 조각형태로 설치되는 작품이다. 홍씨는 남동성당측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이 지난해 5월 남동성당에 5·18 기념성당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 작품 제작을 요청하자 최근까지 1년 여 동안 작업했다. 홍씨가 제작한 ‘14차’는 기존 성화에서 14개 주제를 빌어 80년 5·18 광주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 형상화한 80x80짜리(14x97cm) 유화 작품 14점이다.

을 때어냈다. 홍씨에 따르면 성당측은 “14개 그림이 보편성 원리(예수를 백인으로 묘사하고 장소를 예루살렘 등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림을 절거한 뒤 별도의 걸러리를 만들어 전시해야할 것 같다”고 권고했다. 홍씨는 “성당측의 요청에 따라 만든 대작인데다 별도 전시할 공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을 돌려받을 생각이다”며 “제작 기간 1년 동안 작품과 관련해 아무런 말도 없다가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홍 화백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남동 성당 관계자는 “홍 화백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홍 화백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염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옛 도청 회의실 설계도 원본 공개
1930년께 건축가 김순하씨 제작



지난 1930년 제작된 전남도청 회의실 설계도. 정면도와 측면도, 1·2층 및 지하·옥상의 설계도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판독된다.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전남도청 회의실 설계도 원본이 15일 공개돼 건축가와 문화재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최근 전남도로부터 넘겨 받은 전남도청 회의실 설계도를 공개했다. 설계도는 지난 1997년 7월3일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으나, 훼손을 막기 위해 소유자인 전남도가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 설계도는 근현대 들어 대표적인 건축가로 활동해 온 김순하(1901~1966년)씨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가로 1m, 세로 68cm 크기의 황색 비단 8장에 그려져 있다. 축척은 100분의 1이고, 단위는 척(尺·1척=30.3cm)을 사용했다.

설계도는 지하 1층·지상 2층의 붉은 벽돌건물을 지으면서, 2층의 창문이 위·아래로 나뉘어 밖에서 볼 때는 3층으로 보이게 했다. 또 출입구의 위쪽부터 옥상까지 전체 면을 유리로 장식한데다 건물 양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곡선 처리함과 동시에 강철도 곡선 창을 사용하는 등 당시 설계로는 매우 과격적인 면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순하씨는 전남도청 별관 설계 이전에 본관도 설계했으나 본관 설계도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이 설계도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으로 넘겨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선중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은 “조선총독부 건물의 설계도도 원도가 아닌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남도청 회의실 설계도는 원본으로서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근대건축 설계도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희중기자 cha@kwangju.co.kr

5·18묘지 인근 교통 전면 통제

18일 제26주년 기념식

제2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국립 5·18 묘지 인근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전남경찰청은 15일 5·18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광주시 북구 청옥동 3거리에서 5·18 묘지까지, 수곡동 3거리에서 5·18 묘지까지 차량통행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경찰은 기념식 참석자를 위해 오전 7시50분부터 무등경기장과 광전터미널, 전남지방경찰청, 광주 동초등학교, 수곡동 3거리, 5·18 자유공원 등에서 행사장까지 셔틀서비스를 운행한다. 또 25년 시내버스를 기존 하루평균 5회 27회에서, 34대 175회로 늘려 운행하고 종점도 청옥동 3거리와 5·18 묘지 정문을 거쳐 시립묘지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4거리~청옥동 3거리

리 구간의 양양방면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또 17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를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30까지 금남로 1가와 2가, 3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의 차량통행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희중기자 cki@kwangju.co.kr

5·31 투·개표소 소방점검
소방안전본부 24일까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5·31 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24일까지 투표소 328개소, 개표소 5개소 등 333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이 부적합한 투·개표소 설치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관계인 및 선거위 등에 즉시 통보하여 선거일 전에 시정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 김치축제 세계화 주력

11월 행사주관 대행사 모집

광주시는 올 가을 김치대축제를 제2회 국제식품산업전과 같은 기간에 개최하면서 ‘김치의 세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5일 오는 11월 열릴 제13회 광주김치대축제의 기본방향이 이미 정해지고, 행사를 주관할 대행사 모집공고를 냈다. 제안요청 사업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청 관공과(062-613-3620)에서 접수한다. 광주시는 이번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 외국인 참여 확대 등 김치의 세계화를 통한 매출 증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식품산업전과 연계해 적극적인 김치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

Table with 2 columns: 교통안내 (Traffic Information) and 생활안내 (Living Information). It lists various servic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ublic transport and daily life in Gwangju.

Large advertisement for 'Very Good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China, Japan, and the USA. Includes details on prices, itinerar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travel agency.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of Gwangju. Each listing includes the agent's name, phone number,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y's location, size, and price.